

Special Favorites

당신의 성공과 마음의 휴를 위한 그곳, 즐겨찾기

쉽게 지치는 더운 여름, 몸도 마음도 쉽게 나른해지는 무기력증이 엄습한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입맛도 없고 모든 게 지루하게만 느껴지는 이때, 묵념감이 좋은 맥주처럼 상쾌함을 제공해줄 즐거운 청량제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 그동안 틈틈이 북마크해둔 나만의 즐겨찾기 목록을 점검하고 직접 서핑에 나서보는 것. 그렇다면 나만의 폴더 관리를 위한 항목별 분류 작업부터 시작해보자.

늘 가까이 사귄 벗, 기호품



- ◎소주◎맥주◎양주◎와인◎담배
- ◎커피◎초콜릿◎사탕◎

술만큼 인간의 영혼에 영감을 전달해준 기호품이 있을까. 술에는 풍류가 있고 벗이 있고, 그 시대가 농축돼 있다. 카페인 때문에 그 선호도가 확실히 나뉘기는 하지만 커피 또한 오늘날 현대인의 밑그림에서 빼놓을 수 없다. 아무리 금연운동이 전 국민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해도 담배 역시 여전히 최고의 찬사와 최악의 저주를 함께 받고 있는 메인 기호품.

나만의 아지트, 단골가게



- ◎식당◎술집◎전통찻집◎구두수선소◎재즈바◎신문가판대◎카센터◎백화점◎선물가게◎할인마트◎사우나◎

그 밥집에 가면 맛있는 음식이 있고 인심 좋은 주인 아주머니가 있다. 그 미용실에 가면 나의 스타일을 알아주는 센스 있는 디자이너가 있고, 그 술집에 가면 나의 입맛을 돋우는 푸짐한 안주와 시원한 생맥주가 있다. 그곳에 가면 나를 즐겁게 해주는 그들이 있다.

일상의 비상구, 취미생활



- ◎골프◎인라인스케이트◎요가◎헬스◎등산◎낚시◎재즈◎영화◎연극◎만화◎록◎댄스◎드라이브◎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황금 햇빛의 세례를 아낌없이 받으며 한강변의 시원한 바람을 가른다. 그동안 모아둔 DVD를 층층이 쌓아놓고 영화 삼매경에 빠져든다. 내 인생의 또다른 탈출구가 필요한 사점, 나의 취향과 열정이 듬뿍 담긴 풍요로운 여가 누리기.



클릭클릭 두박두박 “하아~~, 좋다. 담에 또 와야지...” 즐거찾기 목록에 이것들을 추가합니다.
 연결폴더 연결탭 즐겨찾기! 좋은 사람, 좋은 공간, 유익한 사이트 편하게 ‘즐거’ 찾자~!

그대 「나」의 힘 「친구와 가족



- ◎소꿉친구◎단짝친구◎동기동창생◎군대동기◎선후배◎입사동기◎동네친구◎가족◎친척◎연인◎

아무런 계산이 없던 시절부터 세상일에 시끄러워진 지금까지, 서로의 속내를 털어놓는 나의 든든한 동반자들. 상사의 흉을 보고 막막한 현실을 통탄하고 내 인생의 진로를 더듬어보고, 두런두런 얘기꽃을 피우다보면 어느새 혼자 남겨진 것 같던 외로움과도 바이 바이.

내 인생의 정통 프로젝트 「비즈니스 파트너



- ◎고객◎바이어◎협력업체◎상사◎부하◎멘토◎역할모델◎우상CEO◎경쟁업체◎라이벌◎강사◎

비즈니스 로드맵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그들.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든든한 파트너들이 있기에 나의 성공 프로젝트는 추진력을 얻는다. 자신이 바라는 이상적인 파트너를 만나 성공할 수 밖에 없는 사람은 따로 있다. 바로 나 스스로가 끊임없는 노력을 통하여 좋은 파트너의 자격을 갖추어 놓는 것.

아이디어 창고 & 에너지 충전소 「활력 공간



- ◎내 책상◎思考다발구역 화장실◎휴게실◎비상구· 비상계단◎회사옥상◎서점◎박람회장◎새벽시장◎산 정상◎신생아실◎장례식장◎집 옥상◎

온전히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는 해방구이자 영감의 원천을 아낌없이 제공해주는 특별한 공간이 있다. 탁 트인 회사 옥상, 활기 넘치는 새벽시장, 갓 태어난 생명의 신비를 고스란히 품고 있는 신생아실... 그곳에서 나는 새롭게 호흡을 가다듬고 일상에 꽉 박혀 이리저리 뒤엎킨 머리 속에 신선한 에너지를 공급한다.

온라인 갈피 속 달고 달고 문지방 「북마크



- ◎회사홈피◎코스닥· 나스닥 증권 관련사이트◎CEO블로그◎사이월드◎신문사이트◎벤처기업협회사이트◎동호회 카페◎

오프라인으로만 존재하던 세계는 많은 부분 온라인으로 위탁되었고 우리는 또다른 아바타로서 온라인 세계를 살아간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각종 포털사이트와 비즈니스 관련 사이트, 함께 있어 즐거운 동호회 카페 등 하루도 빠짐없이 들르는 나만의 온라인 텃밭.

벤처CEO는 '여기'를 '즐거' 찾는다!

시대를 리드하는 벤처인들이라면, 동시대와 교감하라. 그대의 눈, 그대의 손길, 그대의 발길이 머무는 곳에 그대의 현재와 내일이 있다. 누구보다 빠르고 알찬 정보를 원할 때, 재충전이 필요할 때, 사업상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 벤처 기업 대표들은 어디에 머물고 있었을까. 그들의 온라인/오프라인 즐겨찾기를 따라가보자.

아이디스 ○ 김 영 달 대 표



즐거찾는 사이트 ■ DVR로만 세계 3대 제조업체에 들어가는 국내 벤처기업 아이디스 김영달 대표는 미국 및 전세계의 보안장비관련 기사나 논문 및 리서치에 관심이 많다.

미국의 Security Industry Association이 운영하는 사이트 www.securitygateway.com은 미국 및 전세계 보안시장의 흐름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해준다. 특히, 가장 큰 보안시장을 가지고 있는 미국내 각 부처의 보안장비 예산과 시장이 원하는 향후 보안장비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분기로 발행하는 리포트를 통해 미국내 자사의 실적을 분석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도 가질 수 있다.



즐거찾는 곳 ■ 김대표는 머리 속이 복잡할 때면 삼성동 무역센터 코엑스몰에 있는 서점 'BANDI&LUNI' S'를 찾는다. 이 서점은 전용면적 1700평으로 단일면적으로는 동양 최대규모이고 국내외 장서 2백여 만권을 보유하고 있는 곳. 최근 트렌드를 엿볼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양서들을 보며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다보면 때론 의도치 않은 알자빠기 정보까지 건질 수 있기에 김대표에게 서점은 휴식과 아이디어가 숨쉬는 보물창고다.



즐거찾는 사이트 ■ 온라인게임 개발 및 운영, 모바일게임 개발과 모바일 만화(Moonk) 콘텐츠 등을 제공하는 이쓰리넷 성영속 대표는 게임 관련업계에서 일하다 보니 젊은 유저층의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에 늘 촉각을 세우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양대 모바일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콘텐츠 종합사이트를 즐겨 애용한다.

SKT와 KTF에 운영하는 각 사이트 <http://wireless.nate.com>와 <http://www.magicn.com>에서는 최신 트렌드 및 모바일 게임과 콘텐츠 흐름을 파악하기에 더할나위 없이 좋단다. 또, 게임 유저들의 게임 성향과 그들이 말하는 게임에 대한 서로의 의견, 현 시장의 흐름, 게임 정보 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다음에 있는 모바일 커뮤니티 cafe.daum.net/GVM은 매일매일 둘러보는 요긴한 사이트다.



즐거찾는 곳 ■ 성대표는 개인적인 결정이나 사업상의 중요한 사안을 생각할 때면 몸과 마음을 시원하게 적셔줄 강가나 바닷가를 즐겨 찾는다. 도심 사람들이 쉬이 찾는 한강은 성대표에게도 언제나 편안한 안식처 같은 느낌이다. 또, 얼마간의 여유가 허락되면 뱃고동 소리가 운치 있는 부산 송도 바닷가를 종종 찾는다.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을 바라보며 마음을 어지럽히던 일들을 훌훌 털어버리고 나면, 무엇이든 다시 시작하고픈 힘을 얻는다.



즐거찾는 사이트 ■ 평생교육 및 성인자격증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이러닝(e-Learning)기업 유비온의 임재환 대표는 웹사이트가 소비자에게 어떤 이익을 제공하는 기업형 방식이 아니라면, 모든 인류의 공동자산인 지식이나 예술 등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교환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런 면에서 뉴욕주립대학 빙햄턴캠퍼스 소재의 브로델연구소가 운영하는 사이트 <http://fbc.binghamton.edu>와 구스타브 클림트 갤러리 공식사이트인 www.iklimt.com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전자에는 자본주의 체제, 반체제운동, 미래사회 등에 관한 방대한 자료들이 제공되는데, 현실의 급급함에서 벗어나 거시적인 안목을 키우는데 유용하다. 후자에서는 오스트리아가 탄생시킨 최고의 미술가 클림트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임대표는 이 사이트 곳곳을 둘러보며 진한 감흥과 깊은 상념에 젖어든다.



즐거찾는 곳 ■ 임대표는 개인적으로 사찰에 들르는 것을 좋아한다. 가장 좋아하는 사찰은 경기 남부에 위치하고 있는 칠정사. 사찰 주변의 경관이 아름다울 뿐 아니라 그 절에 얽힌 설화나 전설들이 흥미진진하다는 것이 임대표가 사찰을 즐겨찾는 이유. 특히 머리가 맑지 않은 날, 이곳에 들러 심호흡을 고른다. 혼탁한 세상을 잠시 벗어나 가까운 사찰에서의 만나질, 벤치인들에게 꼭 권해주고 싶은 '즐거찾기' 코스다.